



애경산업 '리큐 진한젤 딥클린 트리플파워' 출시

애경산업이 '리큐 진한젤 딥클린 트리플파워'를 내놓았다. 눈에 보이는 생활 얼룩은 물론 섬유 속 깊은 얼룩 제거까지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세탁세제다. 오일 롤링 업 기술이 숨은 얼룩 제거를, 클린부스터가 행군력을 향상시켰다. 고급스러운 플로럴 향과 청량한 프루티향을 적용해 세탁 시 기분 좋은 산뜻함을 선사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

현대차, 상반기 판매량 '글로벌 빅3' 첫 진입

올해 1~6월 329만9000대 판매 판매 감소폭 5.1%...타사 대비 적어 아이오닉5 흥행과 제네시스 약진 AI 역량 강화 위해 美 연구소 설립 SW센터 구축...과감한 혁신 주도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현대차그룹이 반도체 공급난을 뚫고 올해 상반기 판매량에서 전 세계 3위 완성차그룹으로 도약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6월 글로벌 시장에서 329만 9000대를 판매하며, 토요타그룹(513만 8000대)과 폭스바겐그룹(400만 6000대)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현대차 그룹이 상반기 글로벌 시장 판매량에서 3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347만 5000대를 판매하며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단숨에 2계단을 뛰어올랐다. 이는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5위에 올랐던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거둔 의미 있는 성과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반도체 품귀 현상 속에서도 현대차·기아는 판매 감소 폭이 5.1%에 그쳤다. 토요타(6%), 폭스바겐(14%), 스텔란티스(16%), 르노-닛산-미쓰비시(17.3%), GM(18.6%)등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치다.



아이오닉5와 EV6를 성공시키며 친환경차 경쟁력을 강화한 것도 도약의 밑거름이 됐다. 하반기 아이오닉6(사진)가 출시되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더욱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 | 현대차

이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첫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흥행을 통한 친환경차(전기차) 시장 선점과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약진 덕분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만 7000여대를 판매하며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상반기 미국에서 2만 5668대가 판매되며 반기 기준 최다 판매기록을 경신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

현대차그룹은 미래 신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에는 미래차 시대 신속한 소프트웨어(SW) 역량을 확보를 위한 '글로벌 SW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핵심 인재 양성 및 영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고도의 AI 역량 확보가 곧 로보틱스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신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020년 444억 달러(약 57조 9800억 원) 수준의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2%를 달성해 1772억 달러(약 231조 4232억 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개사는 로봇 AI 연구소에 총 4억 2400만 달러(약 5537억 원)를 출자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마크 레이버트가 최고경영자(CEO) 겸 연구소장을 맡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로봇 AI 연구소는 로봇을 넘어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 신사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AI 신기술 연구개발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글로벌 SW 센터 설립

국내에는 그룹 소프트웨어(SW) 역량

개발을 주도할 '글로벌 SW 센터'를 설립한다.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행 성능을 비롯해 각종 기능과 품질을 규정한다는 뜻) 개발 체계 조기 전환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중이다. 모빌리티,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SW 센터 구축을 통해 그룹 내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SW 센터는 기존 개발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SDV 개발 체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강원랜드, 전년비 영업이익 2489% ↑ 영업제한 풀리자 3분기 만에 적자 탈출



게이밍 공기업 강원랜드(사진)가 3분기 만에 적자에서 탈출했다. 강원랜드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115억원, 영업이익은 69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한 잠정영업실적에서 발표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5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2489.0%나 늘어났다. 실적 호조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375억원을 기록해 3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분야별로 보면 카지노 매출은 2801억원, 비카지노 매출은 31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2.4%, 58.9% 증가했다. 강원랜드는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의한 카지노 영업제한 해소 및 여행심리 개선으로 방문객이 증가했고 게임테이블 가동률을 높인 점을 꼽았다.

실제로 카지노의 경우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업시간 정상화(하루 14시간→20시간)가 이루어졌다. 또한 5월 16일부터 영업장 동시체류인원 제한도 해제(3000명→6000명)되고 스탠딩 베팅도 허용되는 등 영업환경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켜 올해 당기순이익을 반드시 흑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롯데면세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 본상



롯데면세점이 창립 42주년을 맞아 올해 초 새로 선보인 비주얼 아이덴티티(VI·사진)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다. 롯데면세점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비주얼 아이덴티티는 열거구를 통해 면세점을 비롯해 다른 관광유통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트래블 리테일리로 도약하는 롯데면세점의 미래를 표현했다.

롯데면세점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비주얼 아이덴티티는 열거구를 통해 면세점을 비롯해 다른 관광유통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트래블 리테일리로 도약하는 롯데면세점의 미래를 표현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코골이 치료 전, 후천적 발생 요인 경각심 수면 클리닉 내원...정밀 검사·치료 받아야

코골이는 수면 중 호흡 패턴이 불규칙해 허뿌리, 연구개 등을 떨리게 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통 상기도 협소로 나타나는데 가쁘게 호흡을 하여 힘겹게 들어온 공기가 떨림을 유발해 코골이를 일으키는 원리다. 수면 무호흡증 역시 상기도가 좁아 나타나는 수면장애 증상으로 잠을 잘 때 호흡이 일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겪고 있다면 숙면을 방해 받아 주간졸림증, 기면증, 만성피로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수면 중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심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수면클리닉에 내원해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면클리닉에 내원한 뒤 체지방지수(BMI)와 얼굴, 목 등의 구조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비강 내, 목구멍, 후두 등을 내시경 검사하여 코골이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이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검사에 나선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 진단에 효과적인 검사다. 정밀 검사 후 양압기 치료 또는 기도를 확장하는 수술 등을 시행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한다. 특히 비만, 과음 등을 삼가는 개개인 생활 습관 개선 노력 역시 이뤄져야 한다.

수면 아주웰비이비인후과 김병철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흥행 가능성 확인”...친환경 전기차 경주대회 ‘서울 E-프리’ 성공적 개최

반도른, 포뮬러 E 월드 챔피언 등극 팀 우승도 메르세데스-EQ팀 차지 대회운영 미숙...성장 가능성 높아

국내 모터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경주 대회 포뮬러E 월드 챔피언십 서울 E-프리(E-PRIX)'가 14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16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2021~2022 시즌을 마감했다.

포뮬러 E 2021~2022 시즌 챔피언은 메르세데스-EQ팀 소속의 스토펠 반도른(30·벨기에)이 차지했다. 반도른은 14일 서울 잠실 서킷에서 열린 2021~2022 포뮬러E 월드 챔피언십 최종 16라운드 서울 E프리에서 53분 35초 43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2위로 통과하며 승점 18점을 추가해 총 승점 213점으로 시즌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포뮬러 E 2021~2022시즌 챔피언에 등극한 스토펠 반도른이 메르세데스-EQ팀의 포뮬러 E 머신인 '메르세데스-EQ 실버 애로우 02'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재규어 TCS팀 소속의 미치 에반스(뉴질랜드)가 전날 열린 15라운드에서 우승하며 마지막까지 추격해 왔지만, 반도른은 시즌 내내 보여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생애 최초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다.

팀 우승도 승점 319점을 획득한 메르세데스 EQ-포뮬러E 팀에게 돌아갔다. 2위 로켓 벤투리 레이싱을 24점 앞섰다. 이로써 메르세데스-EQ 포뮬러E 팀은 드라이버와 팀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더블 챔피언을 2년 연속 달성하며 전

기자 레이스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처음 열린 포뮬러E 월드 챔피언십은 13일과 14일 양일간 누적 관람객 4만 9500명을 기록하며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회 운영 측면에서 미숙함을 드러내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점, 스트리트 서킷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서울 페스타와 연계해 더욱 짜임새 있는 공연과 이벤트를 추가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이자, 서울을 상징하는 축제로 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서울 E-프리' 경기장에는 입장권 없이도 누구나 들어와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이벤트가 마련돼 모터스포츠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원성열 기자